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미 현

#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금 현 섭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미 현

김미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위 원 장           엄  석  진          

부위원장           최  태  현          

위        원           금  현  섭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투표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우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인식과 투표참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이며,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각각 1,500명의 표본으로 조사된 자료이다. 자료의 분석은 상관관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 중 인식관련 변수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두 투표참여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한계효과로 추정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및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근소한 차이로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투표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제변수 중 두 선거에서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선거관심도 변수였으며 정치효능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만 측정된 변수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인 인식은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중요하다는 것과 둘째, 홍보활동은 선거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메시지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 투표참여,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인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학 번 : 2017-21679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6
제 1 절 이론적 논의 .....	6
1. 참여에 관한 기존 논의 .....	6
2. 투표에 관한 최근 논의 .....	1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12
1. 투표참여 요인 관련 선행연구 .....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	14
제 3 장 연구설계 .....	16
제 1 절 연구가설 및 분석틀 .....	16
1. 연구가설 .....	16
2. 분석틀 .....	16
제 2 절 분석자료 및 변수의 측정 .....	18
1. 분석자료 .....	18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	19
3. 분석방법 .....	28
제 4 장 결과분석 .....	29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	29
1. 응답자의 특성 .....	29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	32
<b>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b>	<b>37</b>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자료 상관분석 .....	37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자료 상관분석 .....	40
<b>제 3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b>	<b>44</b>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	45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자료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	53
3. 분석결과 해석 .....	61
<b>제 5 장 결 론 .....</b>	<b>67</b>
<b>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b>	<b>67</b>
<b>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b>	<b>69</b>
1. 연구의 함의 .....	69
2. 연구의 한계 .....	71
<b>참고문헌 .....</b>	<b>74</b>
<b>Abstract .....</b>	<b>78</b>

## 표 목 차

[표 3-1] 변수별 설문 문항과 측정 .....	25
[표 4-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9
[표 4-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0
[표 4-3]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	32
[표 4-4]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	33
[표 4-5] 주요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	35
[표 4-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자료 상관관계 분석결과	38
[표 4-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자료 상관관계 분석결과	42
[표 4-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45
[표 4-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의 시도별 분석 결과	51
[표 4-1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자료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53
[표 4-1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자료의 시도별 분석 결과 ·	58
[표 4-12] 변수의 관계 요약 .....	62
[표 4-13] 한계효과로 추정된 투표확률의 변화에 대한 기댓값	64
[표 5-1] 분석결과의 요약 .....	68

## 그 립 목 차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	17
------------------------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 국민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며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통해서 국가기관의 구성이 가능해지고 그 민주적 정당성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sup>1)</sup>

또한 참여를 정책결정자의 충원이나 정책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반 시민들의 활동(Verba and Nie, 1972)이라고 볼 때, 선거를 통하여 시민들은 공직을 담당하고 그에 따르는 권력을 행사할 인물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참여의 여러 가지 유형 중 가장 제도화되어 있고 비용이 적게 수반되는 참여의 형태이다.

그러나 투표의 중요성과 낮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투표율의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평균 56.7% 정도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8.9%,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6.1%의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이후 소폭으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8.0%,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르러서야 60%를 넘는 60.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sup>2)</sup>

1) 헌법재판소2018.1.25. 결정 2015헌마821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자면, 일반적으로 현대 선거관리기구의 의미는 ‘선거의 실행과 더불어 국민투표와 같은 법체계에 의해 보장된 직접 민주주의적 수단의 실행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관리하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조직 혹은 기구’로 볼 수 있다(IDEA, 2014).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선거관리 기구는 선거 관련 일반적인 업무에 더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와 선거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역시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절차사무관리 기능 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예방·단속, 선거와 관련한 각종 홍보 활동 및 민주시민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투표제도 등 투표편의를 위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선거와 투표의 가치 전파 및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분야별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선거절차사무 관리 분야에서는 투표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투표제도를 도입·시행하였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투표를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시각장애선거인용 투표물품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홍보분야에서는 투표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SNS등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 포스터·리플릿 등 인쇄물 및 시설물 광고, 그리고 투표참여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인에 대한 법규안내와 각종 민원사무 처리 등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선거사무에 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역할 수행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이유가 되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참여를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투표하는 경우의 기대효용이 큰 경우에 투표에 참여한다고 보는 합리적 선택이론, 두 번째로 소득, 교육, 직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은 개인에 비해 참여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의 자원이 풍부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사회경제적 지위모형, 마지막으로 개인의 심리적 동기 측면에서 참여를 설명하려는 심리모형 등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

투표참여와 관련한 이러한 연구들은 투표비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것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개인의 다양한 투표행위에 어떤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통일된 틀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 투표비용을 극복하는 자원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교육 등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에 관한 이론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개인이 이전보다 많은 자원을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투표가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행위이고, 투표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통일된 틀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투표행위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또한 그 요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투표참여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행정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 투표를 포함한 참여의 목적은 대응성 제고와 정부의 책임성 제고, 또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기능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이익 곧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이승종, 김혜정, 2011)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된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이유가 되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므로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수행이 실제로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바탕으로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이러한 요인들을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1. 연구의 대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이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본 연구의 활용자료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라 각 선거가 있었던 2018년과 2016년이다. 이는 가장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임기 만료에 의한 동시선거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그 직전 실시된 임기 만료에 의한 전국 동시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시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지방선거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를 모두 활용하여 선거의 종류별로 선거에 참여한 혹은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이며, 선거가 실시되었던 시기의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비례할당추출된 표본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인 함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실시하는데, 우선 이론적 논의에서 일반적인 참여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투표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는 투표참여 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도출하여 가설을 수립하고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등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는데, 종속변수로 투표참여 여부를 설정하므로 독립변수와의 관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이후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후 최종적으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제 1 절 이론적 논의

#### 1. 참여에 관한 기존 논의

##### 1) 사회경제적 지위모형(Socio-Economic Status Model)

참여에 관한 이론 중 가장 전통적인 이론적 모형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모형을 들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모형은 Verba와 Nie 등에 의해 구체화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 교육, 직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은 개인에 비해 참여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의 자원이 풍부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에서의 주요 변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 교육, 직업 등이 있는데 먼저 소득의 경우 관련된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 및 태도상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즉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집단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참여를 진작시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육의 경우 사회경제적 배경변수 중 가장 많이 논의되고 유의미한 변수로 여겨지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계층을 점유하고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정치효능감을 지니게 되는 등 차별적인 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태도상의 차이를 지니는 것에 기인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 직업 변수의 경우 다른 변수보다는 해석이 어려운 편이나 직업적으로 시간적 여

유가 있어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지,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는 직무를 담당하여 자신의 지위 보호 또는 신장을 위하여 참여가 중요한지 등의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모형은 일반적으로 널리 수용되어 왔으며 적지 않은 연구들이 투표참여에 있어서도 이 모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참여에 필요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투표참여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이 적고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이승중, 2001),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수준도 향상되었고 개인은 이전에 비해 더욱 많은 자원을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즉 사회경제적 모형은 누가 참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왜 참여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혜정, 2010)

## 2)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참여를 동기차원에서 연구하고자 한 시도는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시작되었다. Downs는 참여를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개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는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투표하는 경우의 기대효용이 큰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투표를 통한 기대편익은 기대비용을 초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대다수의 투표참여자는 비합리적이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owns는 개인이 단기적 관점의 편익에 더하여 장기적 편익을 고려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개인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장기적 편익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이론은 간단명료한 이론체계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적실성 측면에서의 비판, 즉 투표참여의 비용에 비해 투표

를 통해서 얻는 효용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참여의 역설 문제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참여의 역설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정적인 접근방법이 등장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는 투표행위와 같이 비용과 편익 모두가 매우 적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Aldrich(1993)는 투표 결정에 수반되는 적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적은 비용과 적은 편익에 따른 결정인 투표에 대하여 완전한 해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3)</sup>

두 번째는 참여의 동기에 이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참여에는 이기적 목적과 이타적 목적이 동시에 작용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효용도 고려하여 참여활동을 하게 된다는 설명으로 참여요인에 집단적인 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Muller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효용성을 고려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는 이기적이고 일부는 이타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 인간의 본성처럼 참여의 동기 또한 그러하며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sup>4)</sup>

세 번째 접근방법은 투표참여라는 합리적 결정은 효용의 극대화라기 보다는 불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감스러운 상황의 극소화라는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Ferejohn and Fiorian(1974)의 설명에 따르면, 투표의 이유와 관련하여 자신이 투표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한 표 차이로 지는 상황을 생각해볼 때 효용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더 중요한 반면, 유감스러운 상황의 극소화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sup>5)</sup>

마지막 네 번째의 접근방법은 참여의 역설을 설명하는데 가장 보편적

---

3) Aldrich.(1993). p.264-266

4) Whiteley.(1995). p.214-216에서 재인용

5) Ferejohn and Fiorian.(1974). p.533-535



으로 이용되는 관점으로 참여는 시민적 의무감을 충족시켜주는 행위로 이를 통한 비물질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Downs가 기존의 효용함수에 시민의 의무(civic duty)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sup>6)</sup>, Riker와 Ordershook(1968)는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의무를 지킴으로써 오는 만족감 때문에 투표에 참여한다고 설명한다. 즉 투표를 하는 행위로 윤리적 행동을 지켰다고 느끼는 만족감,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을 확인했다고 느끼는 만족감, 정당 선호를 확인했다고 느끼는 만족감, 투표장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만족감, 그리고 정치체제에 대한 효능감을 확인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sup>7)</sup>

### 3) 심리모형(Psychological Model)

마지막으로 개인의 심리적 동기 측면에서 참여를 설명하려는 이론이 있다. Winders(1999)는 미국이 196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조건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투표율이 저하된 것을 지적하면서 사회학적 변수들의 선거참여 분석의 적실성이 절대적 가치를 지닐 수 없으며 오히려 정치 체제, 후보자에 대한 심리적 평가 등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심리모형은 비용과 편익의 합리적 계산만으로는 참여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개인의 의식 및 행태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참여의 동기가 되는 요인들을 다양한 심리적·태도적 동기 차원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투표참여와 관련한 심리모형에서의 주요 변수로는 정치효능감, 신뢰, 정치관심도, 정당성향 등을 들 수 있는데, 정치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시스

---

6) Aldrich.(1993). p.251에서 재인용

7) Riker and Ordershook. (1968). p.28

템에의 참여와 영향력에 대한 인지된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치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의식구조는 참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정치효능감은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고려한 후에도 양의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Almond와 Verba는 참여활동에서 정치효능감이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지난다고 보았고, Wolfsfeld는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 시민 개인의 능력이 필요조건이라면 정치효능감은 충분조건임을 제시하였다.<sup>8)</sup>

신뢰는 사람이나 집단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믿음 및 신용으로써 구체적으로는 긴장이나 그 밖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 기대에 기반하여 위험을 받아들일 의사가 복합된 심리적 상태이다.<sup>9)</sup> 정치적 신뢰수준은 정치적 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참여와의 관계성을 단편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신뢰는 정치적 효능감과 함께 작용하여 참여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Gamson은 효능감의 정도와 신뢰의 정도에 따른 결합효과에 따라 참여형태를 유형화하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0)</sup>

정치관심도는 정치학에서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왔는데,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뜻은 평소에 주위사람들과 정치에 관한 대화를 즐기고 각종 정치행위에 자주 참여하며 정치적인 지식도 높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Milbrath와 Goel은 정치적 관심이 높은 국민들은 공동체 활동이나 공무원과의 접촉이 많은 것과는 관련이 있으나 선거참여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Powell(1986)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캐나다 6개국 비교연구를 통하여 정치관심의 정도가 선거참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sup>11)</sup>

---

8) 이승중, 김혜정.(2011). p.167에서 재인용

9) 김혜정.(2012). p.219

10) Seligson.(1980). p.76에서 재인용

11) Powell.(1986). p.26-32

## 2. 투표에 관한 최근 논의 : 습관으로서의 투표(voting as a habit)<sup>12)</sup>

참여에 관한 이상의 논의에 더하여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참여와 관련하여 설득력 있게 논의되어 온 ‘습관으로서의 투표(voting as a habit)’라는 논의를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Cambel 등은 투표참여와 관련하여 이전 선거에서 투표의 규칙성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투표를 습관적인 행동의 한 종류로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다’ 라고 하였고, Green과 Shachar는 이전의 투표가 현재의 투표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Plutzer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투표행위가 향후 선거에서도 그러한 투표행위를 하게 될 관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Milbrate가 명시적으로 환기시킨 ‘습관 강화(habit strength)’의 개념은 Verba와 Nie, Miller와 Shanks 등에서도 언급되며 용어는 다르더라도 투표행위는 습관적이라는 오랜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습관으로서의 투표는 투표행위가 점진적으로 습득되는 습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참여의 경험을 통해서 일정한 투표참여의 경험을 습관으로 형성하게 되고,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이러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예측한다.

Aldrich 등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행동과 안정된 맥락의 상호작용으로서 습관은 투표율과 강한 연관성이 있으며, 일단 투표습관이 형성된 사람들에게 시민의 의무감 등 투표의 동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lutzer에 따르면 이 관점에서는 투표와 관련하여 기존에 연구되었던 자원과 비용에 관련된 많은 요인들은 투표의 출발, 즉 최초의 선거에서 투표하게 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 외에도 투표 또는 비투표 습관에 안주하도록 하는 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확립된 습관을 해칠 수 있는 요인 등

---

12) Plutzer.(2002)에서 재정리

을 함께 고려하여 발전된 형태의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이 이론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반적인 자원이 증가하고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생기며 동료집단 내에서의 규범 또한 참여를 권장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관성을 지키는 것보다는 투표에 참여하는 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용이하게 되며 이렇게 투표습관이 형성된 이후에는 투표를 방해하는 요인은 일시적으로만 작용하게 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투표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투표행위는 하나의 통일된 틀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 얻은 이론적 함의를 현실에 반영하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본다.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1. 투표참여 요인 관련 선행연구

전통적으로 교육과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인종, 성별, 종교 및 지역성 등과 같은 변수들이 투표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논의되어 왔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자본과 신뢰,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감정요인, 미디어효과 등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주목받았다. 본 연구는 내적 효능감과 신뢰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 주목하되, 이러한 요인들을 투표참여와 관련한 정책들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표와 선거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는 신뢰와 효능

감의 관계에 있어 Gamson은 정치효능감을 신뢰와 연결시켜 정치참여 행태를 예측하는 최초의 가설을 수립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정치효능감이 정부신뢰와 교차작용을 함으로써 참여활동의 양식에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것이다. Gamson의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정치효능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모두 높은 시민은 제도적인 참여 형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강경태(2003)는 제14대 및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와 관련한 연구에서 심리적 변수로 민주화, 정치효능감, 정당 지지여부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는데, 선거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자신의 표가 개표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므로 한국의 선거에서 선거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공정하였는가 하는 것이 한국 유권자의 선거 참여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분석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여부는 제14대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효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거캠페인이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효과적인 투표참여 광고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고, 정치효능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이용한 슬로건을 제작하며, 홍보대사 등 유명인이 참여하는 투표참여 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나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화, 전승우(2015)는 투표참여 광고에 따른 대학생들의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 및 투표 의도 등을 분석한 연구에서 투표참여 광고가 투표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함께 정치효능감과 정치적 이념성향을 고려하여 투표 독려를 위한 광고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투표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투표편의 제공 제도에 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이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인식과 관련한 내용이다.

가상준(2016)은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특성이 투표기권자와 선거일에 투표한 유권자 중 어느 쪽과 동일한지를 비교하여 사전투표 유권자가 과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사전투표가 과거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윤기쁨, 엄기홍(2016)은 기권자와 사전투표자, 선거일 투표한 유권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사전투표의 상당한 효과는 기존에도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편의 효과에 있다는 것과 함께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한 유권자의 관계에서 소득변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소득이 높은 유권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유권자의 경우 선거당일 보다는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즉 소득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동원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이후의 전체적인 투표율 상승은 크지 않아 제도 시행의 효과와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sup>13)</sup> 사전투표제는 선거참여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참여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2. 본 연구의 차별성

---

13) 사전투표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운데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며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주장한 연구도 많다(Fitzgerald 등) : 가상준(2016)에서 재인용

투표참여의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우선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한국의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특히 투표참여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강경태(2003)의 투표참여와 관련한 연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첫째 투표참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된 요인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투표참여 등에 대한 홍보활동, 투표편의제공 제도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역할과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다양하게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상황에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동시지방선거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라는 성격이 다른 두 선거에 대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선거의 종류별로 유권자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투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또한 그 요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 제 3 장 연구설계

### 제 1 절 연구가설 및 분석틀

#### 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인 함의를 얻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투표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 제도와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투표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과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투표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및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투표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분석틀

연구가설과 관련하여 독립변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설정하되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변수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긍정적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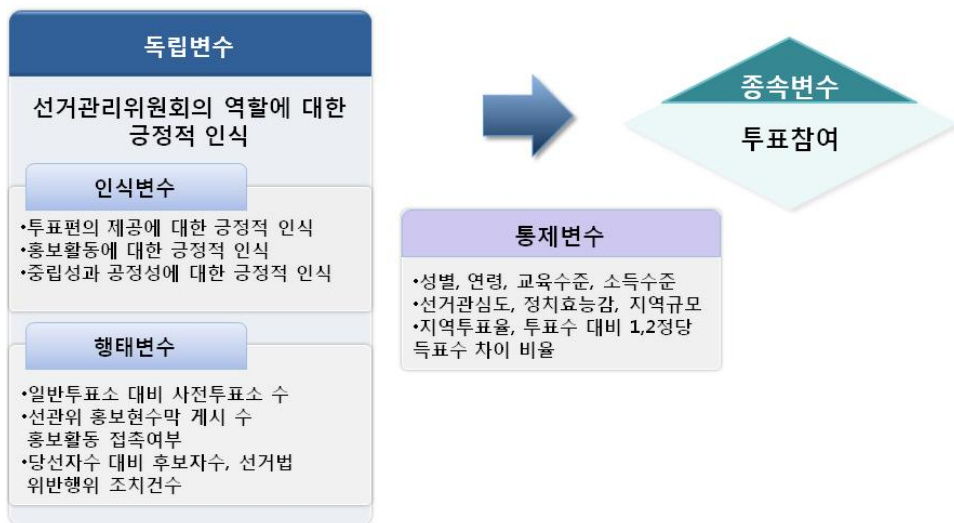


긍정적 인식,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독립변수가 인식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태변수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일반투표소 대비 사전투표소 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현수막 게시 수 및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의 접촉여부, 중립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서는 당선자수 대비 후보자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를 변수로 추가하고자 하며, 종속변수로는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설정하여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제변수로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선거관심도, 정치효능감, 지역규모, 거주지역의 투표율, 거주지역의 정당득표수 차이 비율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통제 한 후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분석틀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 제 2 절 분석자료 및 변수의 측정

###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2018년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주)리서치앤리서치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심 및 투표참여 행태 등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선거관련 제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시마다 해당 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국단위 임기만료 선거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임기만료 공직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6년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인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Quota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총 3차례 실시되었는데, 1차 조사는 선거일 23일전인 2016년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차 조사는 선거일 10일전인 2016년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3차 조사는 선거일후인 2016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되었고 조사의 규모는 각각 1,500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 포인트이며 2016년 2월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하였다. 조사방법은 1차 및 2차에서 1:1 전화면접조사(CATI :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였고 3차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는 역시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인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Quota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앞선 자료와 마찬가지로 총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는 선거일 29일전인 2018년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차 조사는 선거일 11일전인 2018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3차 조사는 선거일 후인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되었고 조사의 규모는 각각 1,500명이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 포인트이며, 2018년 4월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하였다. 조사방법은 1차 및 2차에서 1:1 전화면접조사(CATI :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였고 3차 조사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개별 면접조사(TAPI : Tablet Aided Personal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 동시선거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자료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선거에서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각 선거마다 3차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 자료는 패널자료(panel data)가 아니므로, 이 중 선거에서의 투표여부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3차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 각 선거에서의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자료는 해당 선거의 3차 조사자료이다.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 1) 독립변수

####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긍정적 인식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표편의제공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전투표제도를 들 수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 동안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투표일 이틀 동안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선거일을 포함하여 사실상 선거일이 3일로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전투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19번 문항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15번 문항인 “선생님께서 ‘사전투표제도’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3, ‘매우 도움이 된다’는 4로 코딩하였다.

####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때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정치효능감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작하며, 홍보대사 등 유명인이 참여하는 투표참여 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관리 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26번 문항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23번 문항인 “선생님께서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이 전반적으로 깨끗

한 선거 정착 및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1,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2, ‘보통이다’는 3,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4,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5로 코딩하였다.

####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투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표적인 제도적 참여의 형태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에 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선거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는 정부신뢰와 함께 투표제도에 대한 신뢰의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알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28번 문항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25번 문항인 “선생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수행 공정성(투·개표관리 공정성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1, ‘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는 2, ‘보통이다’는 3, ‘잘하고 있는 편이다’는 4, ‘매우 잘하고 있다’는 5로 코딩하였다.

라. 인식변수 관련 행태변수 : 일반투표소 대비 사전투표소 수,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현수막 게시 수,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접촉여부, 당선자수 대비 후보자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앞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유권자의 인식에 관한 변수들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과 관련된 다음의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인식변수를 보완하기 위해 거주 시·도의 일반투표소 대비 사전투표소의 수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실적자료와 이것을 실제로 접촉하였는지 여부를 변수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만 설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다양한 홍보활동 중 한 가지도 접촉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10%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였던 홍보현수막에 한정하여 거주 시·도의 홍보현수막 게시 수와 홍보현수막 등 시설물 광고의 접촉여부를 변수로 추가하였으며 접촉여부의 경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의 25-5번 문항인 “선생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배너/가로등 현수기/홍보탑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22-5번 문항인 “선생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배너/가로등 현수기/홍보탑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본적 있다’는 1, ‘본적 없다’는 0으로 코딩하였다.

세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 후보자수가 많을수록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거주 시·도의 당선자수 대비 후보자수의 비율, 즉 후보자수를 당선자수로 나눈 숫자를 측정하여 이를 변수로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행태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 자료인 거주 시·도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건수를 변수로 추가하였다.

##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투표참여 여부이다. 투표참여 여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2번 문항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2번 문항인 “선생님께서 이번 선거에 투표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투표했다’는 1, ‘투표하지 않았다’는 0으로 코딩하였다.

### 3) 통제변수

가. 인구학적 요인 등 :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인구학적 특성 등은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 등에서 투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기준(=0)으로 하여 더미변수(dummy)로 측정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19세-29세는 1, 30대는 2, 40대는 3, 50대는 4, 60대는 5, 70세 이상은 6으로 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D1번 문항인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나요?”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D1번 문항인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나요?”라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① 중졸이하 ②고졸 ③대재이상 으로 측정하였다.

소득수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D3번 문항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D3번 문항인 “실례지만, 선생님 댁의 한 달 평균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고, ① 100만원이하 ②101-200만원 ③201-300만원 ④301-400만원 ⑤401-500만원 ⑥501-700만원 ⑦701만원이상으로 측정하였다.

나. 심리모형 관련 변수 등 : 정치효능감, 선거관심도, 지역규모

다음으로 투표참여에 대하여 심리적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정치효능감과 선거관심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정치효능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10-3번 문항인 “선생님께서서는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고,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 ④ 동의하는 편이다 ⑤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선거관심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1번 문항인 “선생님께서서는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의 1번 문항인 “선생님께서서는 지난 4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없었다’는 1, ‘별로 없었다’는 2, ‘조금 있었다’는 3, ‘매우 많았다’는 4로 코딩하였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별로 측정되었으므로 지방의원(시·도의원/구·시·군의원)선거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선거에서 연령변수와 함께 지역에 따른 투표수준의 차이가 논의되어왔음에 착안하여 지역규모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sup>14)</sup> 지역규모는 읍/면지역, 중소도시, 광역시(특별시 포함)로 측정하였다.

다. 투표 관련 기타 변수 : 지역투표율, 투표수 대비 1, 2정당 득표수 차이 비율

또한 투표와 관련하여 거주지역 시·도의 투표율 즉 선거인수 대비 투

---

14) 황아란(1996)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에 대한 연구에서 도시규모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에 속한 선거구의 투표율이 도(道)에 속한 선거구의 투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규모와 투표율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표자수 비율을 추가하여 거주지역의 선거참여 분위기에 대한 요소를 통제하고자 하며, 설문에 참여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별도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선거결과 자료에서 거주지역의 정당성향을 알 수 있는 기호1번 정당과 기호2번 정당의 득표수의 차이를 총 투표자수로 나눈 비율을 변수로 추가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선거결과 자료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시·도지사선거의 정당별 득표수 자료를 활용하였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별로 투표하는 비례대표선거의 정당별 득표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호1번 정당과 기호2번 정당의 득표수가 큰 지역일수록 한 정당에 득표수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특정 정당이 우세한 선거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고 득표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득표수가 한 정당에만 집중되지 않아 후보자 또는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한 선거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통제한 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 문항 또는 자료와 변수의 측정은 [표 3-1]과 같다.

[표 3-1] 변수별 설문 문항과 측정

종류	변 수	사용된 문항 또는 자료	측정
종속 변수	투표참여여부	“선생님께서 이번 선거에 투표 하셨습니까?” 1) 투표했다 2) 투표하지 않았다	투표했다(=1) 투표하지 않았 다(=0)
독립 변수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제공에 대 한 인식	“선생님께서 ‘사전투표제도’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어 느 정도 도움이 된다 4) 매우 도 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 지 않는다(=1) ~ 매우 도움이 된다(=4)

종류	변 수	사용된 문항 또는 자료	측정
독립 변수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선생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선거관 리위원회의 홍보활동이 전반적으 로 깨끗한 선거 정착 및 투표 참 여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효과가 없었다 2) 별로 효과가 없었다 3) 보통이다 4)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5) 많 은 효과가 있었다	전혀 효과가 없 었다(=1) ~ 많 은 효과가 있었 다(=5)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선생님께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수행 공정성(투·개표관리 공 정성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 십니까?” 1) 매우 잘 못하고 있다 2) 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하고 있는 편이다 5) 매우 잘하고 있다	매우 잘 못하고 있다(=1) ~ 매 우 잘하고 있다 (=5)
	일반투표소 대비 사전투표소 수	거주 지역 시·도 내 사전투표소 수/ 일반투표소 수	
	선거관리위원회 홍 보현수막 게시 수	거주 지역 시·도 내 선거관리위 원회 홍보현수막 게시 수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 접촉여부	“선생님께서서는 이번 선거에서 선 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배너/가 로등 현수기/홍보탑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본적 없다 2) 본적 있다	본적 없다(=0), 본적 있다(=1)
	당선자수 대비 후 보자수	거주 지역 시·도의 총 후보자수/ 당선자수	

종류	변 수	사용된 문항 또는 자료	측정
독립 변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거주 지역 시·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건수	
통제 변수	성별	응답자 성별	남성(=1), 여성 (=0)
	연령	응답자 나이	19-29세(=1), 30대(=2), 40대 (=3), 50대(=4), 60대(=5), 70세 이상(=6)
	교육수준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다 니셨나요?” 1) 중졸이하 2)고졸 3)대재이상	중졸이하(=1) ~ 대재이상(=3)
	소득수준	“실례지만, 선생님 댁의 한 달 평균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 100만원이하 2) 101-200만원 3) 201-300만원 4) 301-400만 원 5) 401-500만원 6) 501-700 만원 7) 701만원이상	100만원이하 (=1) ~ 701만원 이상(=7)
	선거관심도	“선생님께서서는 지난 6월 13일 실 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난 4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1) 전혀 없었다 2) 별로 없었다 3) 조금 있었다 4) 매우 많았다’	전혀 없었다 (=1) ~ 매우 많 았다(=4)
	정치효능감	“선생님께서서는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 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 ~ 매우 동의한다 (=5)

종류	변 수	사용된 문항 또는 자료	측정
통제 변수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 4) 동 의하는 편이다 5) 매우 동의한다	
	지역규모	응답자의 거주 지역 규모 1) 광역시(특별시 포함) 2) 중소 도시 3) 읍/면지역	읍/면지역(=1) ~ 광역시(특별 시 포함)(=3)
	지역 투표율	응답자 거주 시·도의 총 투표자 수/ 선거인수	
	정당 득표수 차이 비율	응답자 거주 시·도의 기호1번 정 당 득표수와 기호2번 정당 득표 수 차이/ 시·도 총 투표자수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TATA SE 1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을 개관하면 먼저 응답자 및 주요 변수의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종속변수인 투표참여 여  
부와 독립변수, 그리고 주요 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일반적인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내어 그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  
으며 다만 종속변수가 명목변수(nominal variable)로 주어졌을 때 사용되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 역시 종속변수가 '투표참여 여부'로 이  
항변수(binary variable)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채택하였다.

## 제 4 장 결과분석

###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 1.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표본 수는 선거별 1,500이다. 표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 [표 4-2]와 같다.

[표 4-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500	100
성별	남성	741	49.4
	여성	759	50.6
연령	만19-29세	261	17.4
	30대	257	17.1
	40대	300	20.0
	50대	301	20.1
	60대	200	13.3
	70세 이상	181	12.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98	13.2
	고졸	702	46.8
	대재 이상	600	40.0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	224	14.9
	201-500만원	1,038	69.2
	501만원 이상	238	15.9
지역규모	읍면지역	275	18.3
	중소도시	569	37.9
	광역시	656	43.7

먼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표본 응답자의 성별은 조사대상자 1,500명중 남성이 741명, 여성이 759명으로 각각 49.4%, 50.6%의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은 만19세 이상인 20대가 261명(17.4%), 30대 257명(17.1%), 40대 300명(20.0%), 50대 301명(20.1%), 60대 200명(13.3%), 70세 이상 181명(12.1%)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확정된 선거인명부상의 성별 및 연령비율과 거의 일치하도록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198명(13.2%), 고졸이 702명(46.8%), 대재 이상이 600명(40.0%)였으며 소득수준은 200만원 이하가 224명(14.9%), 20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가 1,038명(69.2%), 501만원 이상이 238명(15.9%)였다. 지역규모는 읍면지역 275명(18.3%), 중소도시 569명(37.9%) 광역시 656명(43.7%)였다.

[표 4-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최종 선거인수는 42,907,715명으로 이 중 남성은 21,250,463명(49.5%), 여성은 21,657,252명(50.5%)였으며, 19세이상 20대는 7,452,755명(17.4%), 30대는 7,337,542명(17.1%), 40대는 8,634,301(20.1%), 50대는 8,566,347(20.0%), 60대이상은 10,916,770명(25.4%)이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p.346-351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547	100
성별	남성	752	48.6
	여성	795	51.4
연령	만19-29세	270	17.4
	30대	298	19.3
	40대	342	22.1
	50대	295	19.1
	60세 이상	342	22.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5	7.4
	고졸	592	38.3
	대재 이상	840	54.3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	218	14.1
	201-500만원	1,021	66.0
	501만원 이상	308	19.9
지역규모	읍면지역	182	11.8
	중소도시	668	43.2
	광역시	697	45.0

다음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표본 응답자의 성별은 조사대상자 1,547명중 남성이 752명, 여성이 795명으로 각각 48.6%, 51.4%의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은 만19세 이상인 20대가 270명(17.4%), 30대 298명(19.3%), 40대 342명(22.1%), 50대 295명(19.1%), 60세 이상 342명(22.1%)로 역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선거인명부상의 성별 및 연령비율과 거의 일치하도록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115명(7.4%), 고졸이 592명(38.3%), 대재 이상이 840명(54.3%)였으며 소득수준은 200만원 이하가 218명(14.1%), 20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가 1,021명(66.0%), 501만원 이상이 308명(19.9%)였다. 지역규모는 읍면지역 182명(11.8%), 중소도시 668명(43.2%) 광역시 697명(45.0%)였다.

##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 1)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투표참여 여부의 기초통계량은 [표 4-3]과 같다.

[표 4-3]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변수	선거	구분	빈도	비율(%)
투표참여 여부	제7회 전국동 시지방선거	참여함	955	63.7
		참여하지 않음	545	36.3
	제20대 국회 의원선거	참여함	910	58.8
		참여하지 않음	637	41.2

먼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종속변수인 투표참여 여부에 대한 통계량을 살펴보면,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500명 중 955명

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최종 선거인수는 42,100,398명으로 이 중 남성은 20,853,820명(49.5%), 여성은 21,246,578명(50.5%)였으며, 19세이상 20대는 7,386,608명(17.5%), 30대는 7,618,369명(18.1%), 40대는 8,852,450(21.0%), 50대는 8,385,972(19.9%), 60대이상은 9,856,999명(23.4%)이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364-371



(63.7%)이며,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545명(36.3%)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2%였으므로 조사대상 표본의 투표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종속변수인 투표참여 여부에 대한 통계량을 살펴보면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547명 중 910명(58.8%)이며,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637명(41.2%)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58.0%이므로 역시 조사대상 표본의 투표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이러한 인식과 관련된 행태변수 4개의 각 선거별 기초통계량은 [표 4-4]와 같다.

[표 4-4]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선거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	1,500	3.13	0.552	1	4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1,500	3.14	0.710	1	5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1,500	3.65	0.595	1	5

선거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반투표소 대비 사전투표소 수	1,500	0.24	0.064	0.18	0.39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현수막 게시수	1,500	2,101	1625.6	193	5,217
	당선자수 대비 후 보자수	1,500	2.31	0.125	2.2	3.3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1,500	182.2	80.08	12	294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제공에 대한 인식	1,547	3.03	0.567	1	4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1,547	3.59	0.763	1	5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 에 대한 인식	1,547	3.52	0.704	1	5
	일반투표소 대비 사전투표소 수	1,547	0.24	0.650	0.19	0.39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현수막 게시수	1,547	2,395	1906.2	41	5,892
	당선자수 대비 후 보자수	1,547	3.69	0.626	2.6	5.4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1,547	130.0	73.75	6	248

독립변수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중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은 4점 척도,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과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각각의 평균은 3.13, 3.14, 3.65점으로 보통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조사 결과에서 각각의 평균은 3.03, 3.59, 3.52점으로 역시 보통 보

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일반투표소 대비 사전투표소의 전체 비율은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4%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시·도별로 18%에서 39%까지 차이가 있었다.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홍보현수막의 시·도별 평균 게시 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2,101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395개였으며 역시 시·도별로 게시 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현수막 등 접촉여부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1,500명 중 604명(40.3%)이 본 적 있다고 대답하였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547명 중 985명(63.7%)이 본 적 있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시·도별 총 당선자수 대비 후보자수 비율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2에서 3.3까지의 값으로 평균은 2.3으로 나타났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6에서 5.4까지의 값으로 평균은 3.7로 나타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자수 대비 후보자수가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도별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평균 182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평균 130건으로 조사되었는데, 후보자수가 많은 동시지방선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3) 통제변수의 기초통계 분석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통제변수의 기술 통계량은 [표 4-5] 와 같다.

[표 4-5] 주요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선거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정치효능감	1,500	3.59	0.846	1	5
	선거관심도	1,500	2.46	0.872	1	4
	지역투표율	1,500	60.22	3.442	55.3	69.2
	투표수 대비 정당 득표수 차이 비율	1,500	26.97	15.93	9.7	77.7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관심도	1,547	2.66	0.795	1	4
	지역투표율	1,547	58.07	2.276	54.8	63.7
	투표수 대비 정당 득표수 차이 비율	1,547	13.22	11.15	0.2	43.1

주요 통제변수 중 정치효능감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정치효능감은 5점 척도 중 3.59점으로 보통(3점)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점 척도 중 2.46점으로 역시 보통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식조사 결과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점 척도 중 2.66점으로 역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조사에서는 정치효능감에 대한 질문이 없어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나와 있지 않다.

조사자의 거주 지역 시·도별 투표율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2,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평균 58.1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선거의 전체 투표율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결과 시·도별 기호1번 정당의 득표수와 기호2번 정당의 득표수 차이를 총 투표수로 나

는 비율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7.0,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3.2로 나타났다. 정당 득표수 차이의 비율이 클수록 한 정당에 득표수가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두 선거 모두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전체적으로는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수 차이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종속변수인 투표참여여부와 독립변수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요 통제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선거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자료 상관분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사된 자료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6]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투표참여 여부와 독립변수 중 인식과 관련한 세 가지 변수 사이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은 투표참여 여부와 상관계수 0.33( $p < 0.001$ )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과 투표참여 여부 사이에는 상관계수 0.26( $p < 0.001$ )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투표참여 여부 사이에는 상관계수 0.27( $p < 0.001$ )로 역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자료 상관관계 분석결과

	투표 여부	편의제 공인식	홍보 활동인식	공정성 인식	사전 투표 소수	홍보 현수 막수	홍보 동접 촉	후보 자수 비율	위반 조치 건수
투표 여부	1								
편의제 공인식	0.33 ***	1							
홍보활 동인식	0.26 ***	0.23 ***	1						
공정성 인식	0.27 ***	0.23 ***	0.44 ***	1					
사전투 표소수	0.04	0.06 **	0.05	0.07 **	1				
홍보현 수막수	-0.02	-0.04	-0.02	-0.03	-0.45 ***	1			
홍보활 동접촉	0.11 ***	0.05 *	0.23 ***	0.16 ***	0.09 ***	-0.09 *	1		
후보자 수비율	0.01	0.05	0.05	-0.04	0.28 ***	-0.19 ***	0.07 **	1	
위반조 치건수	0.01	0.00	-0.03	0.03	0.01	0.06 *	-0.00	-0.41 ***	1
성별	0.02	0.08 *	-0.00	-0.01	0.00	-0.01	-0.02	-0.00	-0.01
연령	0.22 ***	0.03	0.07 **	0.08 **	0.08 **	-0.03	0.05 *	0.01	0.01
교육 수준	-0.06 *	0.08 **	-0.01	-0.03	-0.09 ***	0.09 ***	0.06 *	-0.00	-0.00
소득 수준	-0.05 *	0.03	-0.03	-0.02	-0.23 ***	0.14 ***	0.01	-0.08 **	-0.04
선거 관심도	0.37 ***	0.17 ***	0.16 ***	0.15 ***	0.18 ***	-0.06 *	0.06 *	0.12 ***	-0.00
정치 효능감	0.46 ***	0.22 ***	0.24 ***	0.27 ***	0.01	0.01	0.10 ***	-0.05	0.04
지역 규모	-0.01	-0.02	-0.05	-0.07 **	-0.45 ***	0.34 ***	-0.04	-0.01	-0.58 ***
지역 투표율	0.04	0.14 ***	0.03	0.03	0.72 ***	-0.10 ***	0.01	0.44 ***	0.07 **
정당 득표자 비율	0.02	0.07 **	0.14 ***	0.11 ***	0.35 ***	-0.01	0.06 *	-0.03	-0.15 ***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선거 관심도	정치 효능감	지역 규모	지역 투표율	정당 득표차 비율
투표 여부									
편의제 공인식									
홍보활동인식									
공정성 인식									
사전투표소수									
홍보현수막수									
홍보활동접촉									
후보자수비율									
위반조치건수									
성별	1								
연령	-0.06 *	1							
교육 수준	0.21 ***	-0.68 ***	1						
소득 수준	0.05	-0.46 ***	0.54 ***	1					
선거 관심도	0.05 *	0.22 ***	-0.10 ***	-0.13 ***	1				
정치 효능감	0.00	0.07 **	-0.01	0.02	0.29 ***	1			
지역 규모	-0.00	-0.13 ***	0.15 ***	0.29 ***	-0.14 ***	0.02	1		
지역 투표율	0.00	0.06 *	-0.05	-0.20 ***	0.22 ***	0.05	-0.38 ***	1	
정당 득표차 비율	-0.00	0.02	-0.02	-0.15 ***	0.08 **	0.13 ***	-0.04	0.34 ***	1

\*p<0.05, \*\* p<0.01, \*\*\* p<0.001

또한 인식과 관련된 세 가지 독립변수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과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상관계수 0.23( $p < 0.001$ ),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과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상관계수 0.23( $p < 0.001$ ),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과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상관계수 0.44( $p < 0.001$ )로 인식 관련 세 가지 독립변수 사이에서도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접촉여부와 선거관심도, 정치효능감 세 가지 변수는 선거관리위원회 각 역할에 대한 인식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선거관심도의 경우 위반행위 조치건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p < 0.05$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문제와 관련하여 변수들 사이 상관계수의 값들을 보면 대부분 변수들의 상관계수가 0.1미만에서 0.3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교육수준과 연령변수의 상관계수에서 0.6을 넘는 값이 하나 존재하므로 다중공선성의 진단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에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역 투표율 3.55, 일반투표소 대비 사전투표소 수 3.33, 지역규모 2.69,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2.62, 교육수준 2.33, 연령대 2.07, 당선자수 대비 후보자수 비율 2.05, 홍보현수막 게시 수 1.72, 소득수준 1.60, 투표수 대비 정당득표차이 비율 1.44,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1.36, 공정성에 대한 인식 1.32, 정치효능감 1.24, 선거관심도 1.23,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 1.17, 홍보활동 접촉여부 1.11, 성별 1.07 등 VIF는 평균적으로 1.88의 값을 나타냈다. 통상적으로 분산팽창계수(VIF)가 10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자료 상관분석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조사된 자료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투표참여 여부와 독립변수 중 인식과 관련한 세 가지 변수 사이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와 같이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은 투표참여 여부와 상관관계수 0.28( $p < 0.001$ )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과 투표참여 여부 사이에는 상관관계수 0.23( $p < 0.001$ )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세 번째 독립변수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투표참여 여부 사이에는 상관관계수 0.25( $p < 0.001$ )로 역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식과 관련된 세 가지 독립변수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분석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과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상관관계수 0.19( $p < 0.001$ ),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과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상관관계수 0.19( $p < 0.001$ ),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과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상관관계수 0.45( $p < 0.001$ )로 세 가지 인식 관련 독립변수 사이에서도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반투표소 대비 사전투표소수와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접촉여부, 선거관심도 변수는 선거관리위원회 각 역할에 대한 인식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p < 0.05$ ) 나타났고, 선거관심도 변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자료에서도 당선자수 대비 후보자수 비율과 교육수준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p < 0.05$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표수 대비 정당득표수 차이 비율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자료에서는 홍보활동 접촉여부와 성별 두 가지 변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p < 0.05$ )를 보였다.

[표 4-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자료 상관관계 분석결과

	투표 여부	편의제 공인식	홍보 활동 인식	공정 성 인식	사전 투표 소수	홍보 현수 막수	홍보 동 접촉	후보 자 수 비율	위반 조 치 건수
투표 여부	1								
편의제 공인식	0.28 ***	1							
홍보활 동인식	0.23 ***	0.19 ***	1						
공정성 인식	0.25 ***	0.19 ***	0.45 ***	1					
사전투 표소수	0.17 ***	0.12 ***	-0.05 *	-0.06 *	1				
홍보현 수막수	-0.14 ***	-0.05 *	0.00	-0.03	-0.50 ***	1			
홍보활 동접촉	0.09 ***	0.09 ***	0.13 ***	0.05	0.03	0.01	1		
후보자 수비율	-0.00	-0.00	0.08 **	0.00	0.01	0.21 ***	0.04	1	
위반조 치건수	-0.09 ***	-0.05 *	0.03	0.07 **	-0.52 ***	0.54 ***	-0.10 ***	-0.09 ***	1
성별	0.19 ***	0.03	0.02	0.04	0.02	-0.04	0.07 **	-0.02	-0.01
연령	0.19 ***	0.04	0.06 *	0.09 ***	0.11 ***	-0.10 ***	-0.04	-0.03	-0.09 ***
교육 수준	-0.13 ***	0.00	-0.04	-0.09 ***	-0.24 ***	0.12 ***	0.02	0.01	0.12 ***
소득 수준	-0.01	0.02	0.11 ***	0.10 ***	-0.34 ***	0.22 ***	-0.00	0.11 ***	0.20 ***
선거 관심도	0.55 ***	0.32 ***	0.20 ***	0.21 ***	0.17 ***	-0.14 ***	0.10 ***	0.04	-0.12 ***
지역 규모	-0.14 ***	-0.08 **	-0.04	-0.04	-0.54 ***	0.26 ***	0.08 **	0.18 ***	-0.18 ***
지역 투표율	0.04	0.01	0.03	-0.03	0.17 ***	0.28 ***	0.05	0.87 ***	-0.04
정당 득표차 비율	0.07 **	0.05 *	-0.17 ***	-0.10 ***	0.69 ***	-0.46 ***	0.02	-0.18 ***	-0.51 ***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선거 관심도	지역 규모	지역 투표율	정당 득표차 비율
투표 여부								
편의제 공인식								
홍보활동 인식								
공정성 인식								
사전투표 소수								
홍보현수막 수								
홍보활동 접촉								
후보자 수 비율								
위반조치 건수								
성별	1							
연령	-0.05 *	1						
교육 수준	0.15 ***	-0.57 ***	1					
소득 수준	0.03	-0.30 ***	0.40 ***	1				
선거 관심도	0.18 ***	0.16 ***	-0.04	-0.03	1			
지역 규모	-0.03	-0.05 *	0.17 ***	0.20 ***	-0.13 ***	1		
지역 투표율	-0.02	-0.01	-0.04	0.00	0.09 ***	-0.06 *	1	
정당 득표차 비율	0.01	0.10 ***	-0.20 ***	-0.37 ***	0.10 ***	-0.19 ***	-0.07 **	1

\* p<0.05, \*\* p<0.01, \*\*\* p<0.00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상관분석에서도 변수들의 상관계수 절대값이 대부분 0.1미만에서 0.3정도로 나타나며,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교육수준과 연령변수의 상관계수가 가장 큰 값인 0.57로 나타나 역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나, 다중공선성의 진단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에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역투표율 7.10, 당선자수 대비 후보자수 6.50, 일반투표소 대비 사전투표소수 4.85, 지역규모 3.38,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3.13, 투표수 대비 정당득표수 차이 비율 2.53, 홍보현수막 게시 수 2.48, 교육수준 1.75, 연령 1.57, 소득수준 1.41,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1.37, 공정성에 대한 인식 1.34, 선거관심도 1.29,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 1.17, 성별 1.07, 홍보활동 접촉여부 1.06 등 VIF는 평균적으로 2.62의 값을 나타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통상적으로 분산팽창계수(VIF)가 10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관분석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결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제3의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 제 3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명목변수로 주어졌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사용되는 회귀분석 방법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투표참여 여부’로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 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조사된 자료를 통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투표 참여 여부		Log Odds		Odds Ratio		Marginal Effect	
		Coef.	Std. Err	Odds Ratio	Std. Err	dy/dx	Std. Err
독립 변수	투표편의제공에 대한 인식	1.27***	0.16	3.57***	0.56	0.27***	0.03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0.25*	0.11	1.28*	0.15	0.05*	0.02
	공정성에 대한 인식	0.45**	0.14	1.57**	0.21	0.09**	0.03
	사전투표소수/일반투표소수	1.87	1.91	6.48	12.3	0.39	0.40
	홍보현수막 게시 수	-0.00	0.00	1.00	0.00	-2.68e-06	0.00
	홍보활동 접촉여부	0.17	0.15	1.18	0.17	0.03	0.03
	후보자수/당선자수	0.00	0.74	1.00	0.75	0.00	0.16
	위반행위 조치건수	0.00	0.00	1.00	0.00	0.00	0.00

종속변수 : 투표 참여 여부		Log Odds		Odds Ratio		Marginal Effect	
		Coef.	Std. Err	Odds Ratio	Std. Err	dy/dx	Std. Err
통제 변수	성별	-0.07	0.14	0.93	0.13	-0.01	0.03
	연령	0.38***	0.06	1.45***	0.09	0.08***	0.01
	교육수준	0.39*	0.16	1.47*	0.23	0.08*	0.03
	소득수준	-0.04	0.06	0.96	0.06	-0.01	0.01
	선거관심도	0.81***	0.09	2.24***	0.21	0.17***	0.02
	정치효능감	1.17***	0.10	3.22***	0.32	0.24***	0.02
	지역규모	0.22	0.15	1.25	0.19	0.05	0.03
	지역투표율	-0.04	0.04	0.96	0.04	-0.01	0.01
	정당득표수 차이 비율	-0.01**	0.01	0.99**	0.01	-0.00**	0.00
상수	-12.30***	2.28	4.57e-06***	0.00			
관측치	1,500						
Prob > chi2	0.0000						
Log likelihood	-651.71185						
Pseudo R <sup>2</sup>	0.3370						

\* p<0.05, \*\* p<0.01, \*\*\* p<0.001

먼저 카이제곱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p=0.000$ )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사결정계수(Pseudo  $R^2$ )값은 0.337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약 33.7% 임을 나타낸다. 투표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 다양함을 고려할 때 모형의 설명력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변수별 p값을 보면 17개의 변수 중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공정성에 대한 인식, 연령, 교육수준, 선거관심도, 정치효능감, 정당 득표수 차이 비율 변수 8개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즉 종속변수인 투표참여 여부에 대하여 독립변수 중 인식관련 변수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상수는 승산(Odds)에 로그를 취한 값의 증감을 설명하는 것이다. 승산(Odds)은 확률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으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이 승산에 로그를 취한 값인 회귀계수로는 어떠한 변화인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로그를 제거한 승산의 변화율, 즉 승산비(Odds Ratio)를 중심으로 각각의 변수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유의미하게 나타난 독립변수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은 승산비가 3.57로 투표편의 제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4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에 대한 승산이 257%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은 승산비가 1.28로 홍보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28%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세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승산비가 1.57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

이고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57%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승산의 증가 정도는 변수의 단위가 1단위 증가할수록 각각 257%, 28%, 5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통제변수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연령의 승산비는 1.45로 연령의 단위가 한 단위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은 45%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수준은 승산비가 1.47로 교육의 정도인 3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47%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관심도는 승산비가 2.24로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인 4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124%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정치효능감은 승산비가 3.22로 정치효능감이 높은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222%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당 득표수 차이 비율은 승산비가 0.99로 총 투표수 대비 1,2 정당간의 득표수차이 비율이 클수록 승산비는 1%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의 승산이 증가하며 그 증가 정도는 변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각각 45%, 47%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을 크게 느낄수록 투표의 승산이 증가하며 그 증가 정도는 변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각각 124%, 222% 이다. 또한 투표수 대비 정당 득표수 차이가 클수록 투표의 승산은 감소하며 그 정도는 차이의 비율이 1% 증가할 때 약 1%의 근소한 값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인 일반투표소수 대비 사전투표소수,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현수막 게시 수, 홍보활동 접촉여부, 당선자수 대비 후보자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성별, 소득수준, 지역규모, 지역투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0.05$ )

이렇게 승산비를 통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승산이라는 개념이



확률에 비해 생소하기 때문에 모형을 해석함에 있어 승산보다 확률을 이용한 설명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앞서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추정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위 [표 4-8]에 함께 정리하였다.

한계효과(Marginal effect)란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종속변수가 일어날 확률이 몇%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효과를 중심으로 다시 각각의 변수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유의미하게 나타난 독립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은 한계효과가 0.27로 투표편의 제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4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확률이 약 27%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은 한계효과가 0.05로 홍보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확률이 약 5%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세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한계효과가 0.09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확률이 약 9%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투표의 확률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투표확률은 약 27% 증가하게 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투표확률은 약 5%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투표확률은 약 9%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통제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연령의 한계효과는 0.08로 연령이 1단위 증가할수록 투표확률은 약 8% 증가한

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수준 역시 한계효과가 0.08로 교육의 정도인 3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확률이 약 8%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관심도는 한계효과가 0.17로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인 4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확률이 약 17%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정치효능감은 한계효과가 0.24로 정치효능감이 높은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확률이 약 24%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정당득표수 차이 비율은 한계효과가 -0.00으로 분석되어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증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나머지 변수인 일반투표소수 대비 사전투표소수,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현수막 게시 수, 홍보활동 접촉여부, 당선자수 대비 후보자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성별, 소득수준, 지역규모, 지역투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0.05$ )

## 2) 시·도별 자료 분석 결과

한편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와 관련하여 인식자료는 설문에 기반한 개인 자료이나 행태변수와 관련하여 선거결과 등의 자료는 개인별로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시·도별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분석단위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17개 시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개인단위 변수를 먼저 정렬한 후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16개 시도의 더미변수를 만들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sup>17)</sup>, 그 결과는 다음 표 [4-9]와 같이 나타났다.

---

17) 시도더미변수 생성 후 앞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던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긍정적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세 가지 변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도 시행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4-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의 시·도별 분석결과

종속변수 : 투표참여 여부		Odds Ratio		사도	Odds Ratio	Std. Err
		Odds Ratio	Std. Err			
독립 변수	투표편의제공에 대한 인식	4.04***	0.66	부산	0.79	0.25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1.29*	0.15	대구	2.58*	0.98
	공정성에 대한 인식	1.61**	0.40	인천	1.63	0.59
	홍보활동 접촉여부	1.16	0.17	광주	0.80	0.36
통제 변수	성별	0.94	0.14	대전	2.00	0.81
	연령	1.45***	0.09	울산	0.56	0.29
	교육수준	1.40*	0.22	세종	0.91	0.88
	소득수준	0.96	0.06	경기	1.66	0.54
	선거관심도	2.30***	0.22	강원	2.16	1.05
	정치효능감	3.54***	0.43	충북	0.63	0.32
	지역규모	1.26	0.24	충남	0.82	0.39
상수	2.19e-07**	2.55e-07	전북	1.14	0.53	
관측치	1,500		전남	0.30*	0.17	
Prob > chi2	0.0000		경북	2.98*	1.46	
Log likelihood	-637.08441		경남	1.58	0.71	
Pseudo R <sup>2</sup>	0.3519		제주	1.00	0.69	

\* p<0.05, \*\* p<0.01, \*\*\* p<0.001

먼저 카이제곱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p=0.000$ )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사결정계수(Pseudo  $R^2$ )값은 0.3519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변수별 p값을 보면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공정성에 대한 인식, 연령, 교육수준, 선거관심도, 정치효능감 변수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유의미하게 나타난 독립변수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은 승산비가 4.04로 투표편의 제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4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에 대한 승산이 304%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은 승산비가 1.29로 홍보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29%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승산비가 1.61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61%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승산의 증가 정도는 변수의 단위가 1단위 증가할수록 각각 304%, 29%, 6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통제변수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연령의 승산비는 1.45로 연령의 단위가 한 단위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은 45%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수준은 승산비가 1.40으로 교육의 정도인 3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40%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관심도는 승산비가 2.30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인 4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130%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정치효능감은 승산비가 3.54로 정치효능감이 높은 정

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254%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의 승산이 증가하며 그 증가 정도는 변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각각 45%, 40%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을 크게 느낄수록 투표의 승산이 증가하며 그 증가 정도는 변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각각 130%, 254% 이다.

이 결과를 앞서 모든 변수를 포함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개인 수준의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의 종류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승산비에는 변화가 있으나 그 수치는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을 기준으로 한 16개의 시도더미변수 분석 결과는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p>0.05$ ) 서울과 다른 시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자료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 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조사된 자료를 통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자료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투표 참여 여부		Log Odds		Odds Ratio		Marginal Effect	
		Coef.	Std. Err	Odds Ratio	Std. Err	dy/dx	Std. Err
독립 변수	투표편의제공 에 대한 인식	0.54***	0.13	1.72***	0.23	0.13***	0.03

종속변수 : 투표 참여 여부		Log Odds		Odds Ratio		Marginal Effect	
		Coef.	Std. Err	Odds Ratio	Std. Err	dy/dx	Std. Err
독립 변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0.28**	0.10	1.32**	0.13	0.06**	0.02
	공정성에 대한 인식	0.39***	0.11	1.47***	0.16	0.09***	0.03
	사전투표소수/ 일반투표소수	3.21	2.31	24.7	56.9	0.75	0.54
	홍보현수막 게시 수	-0.00	0.00	1.00	0.00	-0.00	0.00
	홍보활동 접촉여부	0.24	0.14	1.27	0.18	0.06	0.03
	후보자수/ 당선자수	-0.43	0.27	0.65	0.18	-0.10	0.06
	위반행위 조치건수	0.00	0.00	1.00	0.00	0.00	0.00
통제 변수	성별	0.09	0.14	1.10	0.15	0.02	0.03
	연령	0.16**	0.06	1.17**	0.69	0.04**	0.01
	교육수준	-0.37**	0.14	0.69**	0.10	-0.09**	0.03
	소득수준	0.15**	0.06	1.16**	0.07	0.03**	0.01
	선거관심도	1.75***	0.11	5.77***	0.64	0.41***	0.03
	지역규모	-0.02	0.18	0.98	0.18	-0.00	0.04
	지역투표율	0.10	0.08	1.11	0.09	0.02	0.02
	정당득표수 차이 비율	-0.01	0.01	0.99	0.01	-0.00	0.00
상수	-13.23**	4.03	1.79e-06**	7.23 e-06			

종속변수 : 투표 참여 여부	Log Odds		Odds Ratio		Marginal Effect	
	Coef.	Std. Err	Odds Ratio	Std. Err	dy/dx	Std. Err
관측치	1,547					
Prob > chi2	0.0000					
Log likelihood	-713.10987					
Pseudo R <sup>2</sup>	0.3196					

\* p<0.05, \*\* p<0.01, \*\*\* p<0.001

먼저 카이제곱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p=0.000)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사결정계수(Pseudo R<sup>2</sup>)값은 0.319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약 32.0% 임을 나타낸다. 앞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와 비슷한 수치로 모형의 설명력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변수별 p값을 보면 16개의 변수 중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공정성에 대한 인식,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선거관심도 변수 7개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자료 분석결과에서도 종속변수인 투표참여 여부에 대하여 독립변수 중 인식관련 변수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제공에 대한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자료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조사된 자료인 정치효능감 변수는 측정되지 않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던 소득수준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변수였던 정당득표수 차이 비율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

타났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승산비(Odds Ratio)를 중심으로 각각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유의미하게 나타난 독립변수 중 첫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은 승산비가 1.72로 투표편의 제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4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에 대한 승산이 72%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은 승산비가 1.32로 홍보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32%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세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승산비가 1.47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47%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통제변수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연령은 승산비가 1.17로 연령이 1단위 증가할수록 투표의 승산은 17%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은 승산비가 0.69로 교육의 정도인 3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은 31% 감소한다고 해석되며, 소득수준은 승산비가 1.16으로 소득수준의 정도인 7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은 16%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관심도는 승산비가 5.77로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인 4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477%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변수인 일반투표소수 대비 사전투표소수,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현수막 게시수, 홍보활동 접촉여부, 당선자수 대비 후보자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성별, 지역규모, 지역투표율, 정당득표수 차이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0.05$ )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종속변수가 일어날 확률이 몇%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의 한계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의미하게 나타난 독립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은 한계효과가 0.13으로 투표편의 제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4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확률이 약 13%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은 한계효과가 0.06으로 홍보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확률이 약 6%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세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한계효과가 0.09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확률이 약 9%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투표의 확률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투표확률은 약 13% 증가하게 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투표확률은 약 6%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투표확률은 약 9%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통제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연령은 한계효과가 0.04로 연령이 1단위 증가할수록 투표확률은 약 4%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교육수준은 한계효과가 -0.09로 교육의 정도인 3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확률이 약 9% 감소한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수준은 한계효과가 0.03으로 소득수준의 정도인 7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확률이 약 3%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관심도는 한계효과가 0.41로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인 4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확률이 약 41%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변수인 일반투표소수 대비 사전투표소수,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현수막 게시 수, 홍보활동 접촉여부, 당선자수 대비 후보자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건수, 성별, 지역규모, 지역투표율, 정당득표수 차이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0.05$ )

## 2) 시·도별 자료 분석 결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 또한 인식관련 자료와 행태변수 자료 중 분석단위가 다른 자료가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17개 시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앞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와 같이 우선 개인단위 변수를 먼저 정렬한 후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16개 시도의 더미변수를 만들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11]과 같다.

[표 4-1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자료의 시·도별 분석결과

종속변수 : 투표참여 여부		Odds Ratio		사도	Odds Ratio	Std. Err
		Odds Ratio	Std. Err			
독립 변수	투표편의제공에 대한 인식	1.66***	0.22	부산	1.32	0.37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1.40**	0.15	대구	1.82	0.67
	공정성에 대한 인식	1.46**	0.16	인천	0.57	0.18
	홍보활동 접촉여부	1.38*	0.20	광주	1.86	0.73
통제 변수	성별	1.09	0.15	대전	2.85*	1.29
	연령	1.18**	0.70	울산	1.66	0.78
	교육수준	0.65**	0.94	경기	2.89**	0.97

종속변수 : 투표참여 여부		Odds Ratio		사도	Odds Ratio	Std. Err
		Odds Ratio	Std. Err			
통제 변수	소득수준	1.20**	0.71	강원	6.17**	3.43
	선거관심도	5.92***	0.67	충북	16.7***	10.4
	지역규모	1.82*		충남	4.00**	2.03
상수		0.00***	0.00	전북	3.13*	1.55
관측치		1,537		전남	3.94*	2.32
Prob > chi2		0.0000		경북	5.47***	3.51
Log likelihood		-695.59359		경남	7.51***	4.23
Pseudo R <sup>2</sup>		0.3329		제주	4.59*	2.25

\* p<0.05, \*\* p<0.01, \*\*\* p<0.001

우선 카이자승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p=0.000)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사결정계수(Pseudo R<sup>2</sup>)값은 0.3329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변수별 p값을 보면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공정성에 대한 인식, 홍보활동 접촉여부,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선거관심도, 지역규모 변수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독립변수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은 승산비가 1.66으로 투표편의 제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4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에 대한 승산이 66%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은 승산비가 1.40으로 홍보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

는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40%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승산비가 1.46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정도인 5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46%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시도별 분석에서는 홍보활동 접촉여부도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승산비는 1.38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등 홍보활동을 접하였을수록 투표의 승산이 38%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을 접촉한 경우에 투표의 승산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승산의 증가 정도는 변수의 단위가 1단위 증가할수록 각각 66%, 40%, 46%, 3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통제변수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연령의 승산비는 1.18로 연령의 단위가 한 단위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은 18%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수준은 승산비가 0.65로 교육수준의 정도인 3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35%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은 승산비가 1.20으로 소득수준의 정도는 7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은 20%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선거관심도는 승산비가 5.92로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인 4점 척도상의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투표의 승산이 492%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도별 분석에서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지역규모의 승산비는 1.82로 지역의 규모가 읍면지역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특별시·광역시 등으로 1단위 커질수록 투표의 승산이 증가하며 그 정도는 변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82%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앞서 모든 변수를 포함한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시도별 분석결과에서 독립변수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 접촉여부와 통제변수 중 지역규모가 유의미한 변수로 추가되었고 이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

의 유의성은 동일하였으며 승산비에는 변화가 있으나 역시 그 수치는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시도별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서울을 기준으로 한 16개의 시도더미변수 분석 결과 16개 시도의 결과 중 10개 시도의 결과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p < 0.05$ )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서울과 다른 시도 사이의 차이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시도더미변수 중 세종시의 경우에는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결과가 모두 ‘투표함’으로 측정되어서 해당 시도의 결과값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3. 분석결과 해석

#### 1) 변수의 관계 요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자료 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제도 및 홍보활동, 중립성과 직무수행 공정성 관련 행태변수 자료는 종속변수와의 인과관계에서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식과 관련된 변수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홍보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중립성과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종속변수인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투표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 제도와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과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및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인식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별로 변수들의 관계와 각각의 승산비(Odds Ratio)는 다음 [표 4-12]에 정리하였다.

[표 4-12] 변수의 관계 요약

종속변수 : 투표참여여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체분석 Odds Ratio	시도별분석 (개인수준변수) Odds Ratio	전체분석 Odds Ratio	시도별분석 (개인수준변수) Odds Ratio
독립 변수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3.57***	4.04***	1.72***	1.66***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1.28*	1.29*	1.32**	1.40**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1.57**	1.61**	1.47***	1.46**
	일반투표소수 대비 사전투표소 수	6.48	-	24.7	-
	홍보현수막 게시 수	1.00	-	1.00	-
	홍보활동 접촉여부	1.18	1.16	1.27	1.38*
	당선자수 대비 후보자수	1.00	-	0.65	-
	위반행위 조치건수	1.00	-	1.00	-
통제 변수	성별	0.93	0.94	1.10	1.09
	연령	1.45***	1.45***	1.17**	1.18**
	교육수준	1.47*	1.40*	0.69**	0.65**
	소득수준	0.96	0.96	1.16**	1.20**
	선거관심도	2.24***	2.30***	5.77***	5.92***
	정치효능감	3.22***	3.54***	변수없음	변수없음

종속변수 : 투표참여여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체분석 Odds Ratio	시도별분석 (개인수준변수) Odds Ratio	전체분석 Odds Ratio	시도별분석 (개인수준변수) Odds Ratio
통제 변수	지역규모	1.25	1.26	0.98	1.82*
	지역투표율	0.96	-	1.11	-
	정당득표수 차이 비율	0.99**	-	0.99	-

\* p<0.05, \*\* p<0.01, \*\*\* p<0.001

우선 앞서 언급하였듯이 독립변수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두 선거 모두에서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 선거관심도 변수가 두 선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수준 변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영향을 주는 방향이 각각 정(+)의 방향, 부(-)의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 변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득표수 차이 비율 변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만 측정되었던 정치효능감 변수와 함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측정되었다.

또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중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해 변수값이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투표확률 변화에 대한 기댓값을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통하여 추정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4-13]과 같다. 시도별 분석의 경우 한계효과를 구하기 위하여 개인수준의 변수로만 회귀분석하여 결과값을 구하였다.

[표 4-13] 한계효과로 추정된 투표확률의 변화에 대한 기댓값

변수값이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투표확률의 변화에 대한 기댓값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체분석	시도별분석 (개인수준변수)	전체분석	시도별분석 (개인수준변수)
독립 변수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27%	(+)16%	(+)13%	(+)8%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긍 정적 인식	(+)5%	(+)4%	(+)6%	(+)4%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 성과 직무수행 공정성 에 대한 긍정적 인식	(+)9%	(+)6%	(+)9%	(+)6%
통제 변수	연령	(+)8%	(+)6%	(+)4%	(+)2%
	교육수준	(+)8%	(+)5%	(-)9%	(-)6%
	소득수준	유의미하지 않음	유의미하지 않음	(+)3%	(+)2%
	선거관심도	(+)17%	(+)11%	(+)41%	(+)29%
	정치효능감	(+)24%	(+)18%	변수없음	변수없음

인식과 관련한 독립변수인 세 변수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비교하면 측정기준이 투표편의 제공 제도에 대한 인식의 경우 4점 척도, 나머지 변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투표편의 제공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투표참여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정치효능감과 선거관심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효능감과 선거관심도 사이의 영향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치효능감의 영향력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선거별 분석결과의 비교

자료를 통하여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라는 두 종류의 다른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해보자면 독립변수 중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세 가지 변수가 두 선거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고 한계효과로 추정하였을 때 그 정도는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순이었다. 다만 두 선거를 비교하였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은 국회의원선거에서보다 지방선거에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서는 선거관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거관심도는 지방선거보다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교육수준의 경우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정(+)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의 정도인 3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투표참여에 부(-)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함에 따라 단일선거보다는 절차가 복잡하고 후보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되는 등 선거별로 다른 특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참여에 있어 교육수준의 부(-)의 영향력은 사회경제적 지위모형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난 소득수준의 경우 투표참여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상관계수 0.54( $p < 0.001$ )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변수가 투표참여에 있어서 반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많은 선거를 대상으로 한 누적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시도별 분석 자료에서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전체변수를 포함한 분석과 시도별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으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개인수준 변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 접촉여부와 지역규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 중 지역규모에 대한 결과 역시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투표참여에 정(+)<sup>2</sup>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 측면이나 정치효능감의 측면에서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제변수로 추가한 지역규모는 행정계층에 따른 구분인데,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기도 하는 등 행정계층의 구분만으로 선거구의 특성을 짐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참여에 보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환경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역시 추가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투표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우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인식과 투표참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이며,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각각 1,500명의 표본으로 조사된 자료이다. 자료의 분석은 상관관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 중 인식관련 변수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두 투표참여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통제변수 중 두 선거에서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선거관심도 변수였고 정치효능감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 변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한계효

과로 추정해보면, 독립변수 중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및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근소한 차이로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투표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다음 [표 5-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1] 분석결과의 요약

종속변수 : 투표참여여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체분석		시도별분석 (개인수준변수)		전체분석		시도별분석 (개인수준변수)	
		Odds Ratio	Margi- nal Effect	Odds Ratio	Margi- nal Effect	Odds Ratio	Margi- nal Effect	Odds Ratio	Margi- nal Effect
독 립 변 수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3.57	27%	4.04	16%	1.72	13%	1.66	8%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1.28	5%	1.29	4%	1.32	6%	1.40	4%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1.57	9%	1.61	6%	1.47	9%	1.46	6%
통 제 변 수	연령	1.45	8%	1.45	6%	1.17	4%	1.18	2%
	교육수준	1.47	8%	1.40	5%	0.69	-9%	0.65	-6%
	소득수준	유의미하지 않음				1.16	3%	1.20	2%
	선거관심도	2.24	17%	2.30	11%	5.77	41%	5.92	29%
	정치효능감	3.22	24%	3.54	18%	변수없음			

## 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1. 연구의 함의

본 연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세 가지 직무분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인식 관련 세 가지 독립변수 모두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함의를 정리해보자면 첫째, 투표참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토대로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투표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독립변수 가운데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던 투표편의 제공 제도의 대표적인 제도인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제도의 시행 이후 사전투표의 비율만큼 투표율의 상승 정도가 크지 않았고, 사전투표가 기존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권자를 투표하도록 하였다기보다는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던 유권자를 사전투표일에 나누어 투표하도록 하는 효과가 크므로 투표율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한 선행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유권자들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더라도 사전투표제도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거일 당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선거에서 투표참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므로 사전투표제도의 효과에 대하여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더욱 신중한 평가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습관으로서의 투표’ 논의와 연결하여 생각하였을 때 이미 투표습관이 형성된 유권자가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투표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투표를 위한 제도와 제반여건이 갖추어졌더라도 투표하지 않을 수 있는 유권자를 제도의 시행만으로 투표장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의 여부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의 효과를 과소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투표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시행과 관련하여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별 역할 가운데 분석결과 투표참여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시행에 있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가 투표소에 오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표참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 독립변수 중에서는 투표참여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유의미하며, 한계효과 추정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이나 공정성보다 투표참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통제변수인 선거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지므로 홍보와 관련한 정책은 선거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분석결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투표참여에 좀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어떤 방법

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 즉 전달하는 주체가 어떠한 존재이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유권자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선거시기가 되면 정당이나 후보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것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주체가 신뢰가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거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판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며,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환경 외에도 매개집단, 권력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모형의 설명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구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유사결정계수(Pseudo  $R^2$ )값으로 본 모형의 설명력이 각각의 분석에서 30%를 상회하는 수치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 정도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상호관련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추정에 있어 좀 더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두 선

거에서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호관련성에 더하여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완벽하게 통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통제하지 못한 제3의 다른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가 실제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인식변수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정한 행태변수 중에는 개인수준으로 측정할 수 없어 시도수준으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단위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석단위의 문제가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검증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는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와 관련된 한계점으로,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서 선거별로 측정되지 않은 변수가 존재하였다는 점과 변수별로 5점 척도 또는 4점 척도 등으로 결과 값이 동일한 간격으로 측정되어 있지 않아 회귀분석 결과에서 계수 등의 수치를 정교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선거결과 데이터 등 선거관련 자료의 경우 앞서 언급한 분석단위의 문제와 함께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자체에도 한계가 있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어려웠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다른 시기에 행하여진 선거가 구분된다는 전제로 데이터를 선거별로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였는데, 종류가 다른 선거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선거에서 조사된 자료를 합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 분석에서 활용한 자료인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는 패널데이터가 아니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습관으로서의 투표 논의에 따르면 투표습관이 형성된 유권자의 경우 계속하여 투표를 하는 행동



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패널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와 같이 전국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실제 선거인과 유사하게 표본이 추출될 수 있도록 하며 선거 시기와 가깝게 조사를 시행하는 등 연구 자료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패널데이터로 구성된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다면 이를 통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Aldrich(1993)는 ‘투표는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행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행동이며 따라서 민주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하여 투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속성을 잘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두 개의 선거에 대한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선거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투표에 대하여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가상준. (2016).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제고하는가?. *한국정당학회보*, 15(1), 5-28.
- 강경태. (2003). 한국 대통령선거 어떤 유권자가 참여하나? 선거관심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1), 91-112.
- \_\_\_\_\_. (2008). 5.31 지방선거 투표참여도 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1(1), 223-244.
- 강우진. (2012).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택소유 형태가 투표 불참에 미치는 영향 연구-제18대 총선의 경우. *한국정당학회보*, 11(2), 67-94.
- 김왕식. (2008). 투표참여와 기권-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46, 295-312.
- 김한나. (2016). 정치참여의 다양성과 심리적 조건-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1), 81-110.
- 김혜정. (2010). 시민의 참여 동기와 정치참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83-104.
- \_\_\_\_\_. (2012).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회보*, 46(2), 213-240.
- 류태건. (2010). 정치효능·정치신뢰·정치참여의 이론과 현실. *지방정부연구*, 14(2), 243-267.
- 문우진. (2009). 정치정보,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4), 327-349.
- 박상호, & 성동규. (2004). 미디어 신뢰도가 정치효능감과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언론학회보*, 49(4), 110-139.

- 송건섭. (2004). 유권자의 투표행태 연구-6.13 지방선거(2002)와 4.15 총선(2004) 비교. *지방정부연구*, 8(3), 215-235.
- 안형기, & 신범순. (2006). 정치참여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지적 효능감.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1), 27-49.
- 윤기쁨, & 엄기홍. (2016). 사전투표제가 새로운 유권자의 참여를 동원하였는가. *미래정치연구*, 6(2), 31-53
- 이승중. (2001). 지방정치에서의 참여불평등-현실과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35(1), 327-344.
- 이승중, & 김혜정. (2011).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 이영화, & 전승우. (2015). 투표참여 독려 광고가 유권자의 정치효능감과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른 대학생들의 투표참여 행위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38, 5-39.
- 이재철. (2018).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 *정치정보연구*, 21(1), 187-214.
- 이한수. (2017). 선거와 선거관리에 대한 유권자 의식분석. *연구방법논총*, 2(2), 1-26.
- 이현우, & 이정진. (2010). 선거제도 및 관리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OUGHTOPIA*, 25(3), 329-357.
- 조진만, 김영철, & 조영호. (2015). 선거품질 평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의정연구*, 21(1), 166-19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_\_\_\_\_.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총람(2016. 4. 13. 시행)*,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_\_\_\_\_.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_\_\_\_\_ .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2018. 6. 13. 시행),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충남, & 이상봉. (2005). 중·소도시 주민의 지방정치에의 참여의식과 참여행태에 관한 변량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91-116.
- 최연혁. (2014). 선거관리제도 평가와 선거의 질 측정의 방법론적 고찰. *의정논총*, 9(2), 61-94.
- 한국정치학회.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외부평가 - 201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보고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_\_\_\_\_ .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부평가 - 선거제도, 과정, 관리, 지역별 분석.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홍혜승, & 류은영. (2015). 신뢰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2), 131-155.
- 황아란. (1997).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4), 285-298.

## 2. 외국문헌

- Aldrich, J. H. (1993). Rational choice and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6-278.
- Aldrich, J. H., Montgomery, J. M. & Wood, W. (2011). Turnout as a Habit. *Polit Behav*, 33, 535-563.
- Crosby, L. A. Eyn, K. R. & Cowles, D. (1990). Relationship Quality in Services Selling-An Interpersonal Influence Perspective. *Journal of Marketing*, 54(July), 68-81.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Collins.

- Ferejohn, J. A., & Fiorina, M. P. (1974). The paradox of not voting—A decision theoretic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2), 525–536.
- IDEA. (2014). *Electoral Management Design(Revised Editi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Handbook Series.
- Milbrath, L. W. & Goel, M. 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Plutzer, E. (2002). Becoming a habitual voter—Inertia, resources, and growth in young adultho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41–56.
- Powell, G. B. (1986). American voter turnout in comparative perspectiv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1), 17–43.
- Riker, W. H., & Ordeshook, P. C.(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1), 25–42.
- Seligson, M. A. (1980). Trust, efficacy and modes of political participation—A study of Costa Rican peasan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1), 75–98.
- Seligson, M. A., & Booth, J. A. (1995). *Elections and Democracy in Central America(New and Enlarged Edition)*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Verba, S., & Nie, 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per and Row.
- Whiteley, P. F. (1995). Rational choic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valuating the debat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8(1), 211–233.

## Abstract

# The Effects of Voter's Perception of Election Commission's Role on Voting

: Focused on the 7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2018) and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2016)

MiHyon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voter's perception of Election Commission's role and voting participation in the 7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and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ith the assumption that positive perception of Election Commission's role has a positive effect on voting participation.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are "Research on voter awareness about the 7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and "Research on voter awareness about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t surveyed on 1,500 samples of men and women aged 19 and older living in 17 cities across the country, respectively. The analysis of the data utilizes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in the study that as an independent variable, positive perception of Election Commission's provision of voting convenience, positive perception of Election Commission's publicity activities, and positive perception of Election Commission's neutrality and fairness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voting participation in both the 7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and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Second, estimating by marginal effect, positive perception of the Election Commission's provision of voting convenience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among independent variables, and positive perception of the Election Commission's neutrality and fairness were found to have a greater impact than of the Election Commission's publicity activities by a narrow margin.

Third, the control variables that appears to significant effect in both elections were age, education level, and election interest. Political efficacy measured only in the 7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was also found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addition, income levels appeared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nly.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voter's positive perception of Election Commission's role can be judg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voting, and its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policies to activate voting participation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activate voting participation,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policies that can practically guarantee participation. second, publicity activities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can effectively enhance election interest and political efficacy. third, the Election Commission needs to get the public trust in order to give influential messages.

**keywords : Voting, Election Commission, Voter's perception, the 7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Student Number : 2017-21679**